C-P-26

몇 가지 처리가 산꼬리풀 유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연수호[1)], 이승연[2)], 이철희[1)*]

[1]충북대학교 축산 · 원예 · 식품공학부 생물건강소재산업화사업단, [2]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Effects of Several Treatments on Seedling Growth of *Veronica rotunda* var. *subintegra* T.Yamaz.

Soo Ho Yeon[1)], Seung Yeon Lee[2)] and Cheol Hee Lee[1)*]

[1]Brain Korea 21 Center for Bio-Resource Development, Division of Animal, Horticultural, and Food Scienc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2]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Korea National Arboretum, Yangpyeong 12519, Korea

산꼬리풀(*Veronica rotunda* var. *subintegra* T.Yamaz.)은 다년생 초본류로 달성이라는 꽃말을 가진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다. 줄기는 곧게 서며, 줄기 끝에 보라색의 꽃이 총상화서로 피어 관상가치도 우수하다. 또한, 전초를 일지향이라 불리우며, 중약대사전에는 천식과 기침, 감기, 기관지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산꼬리풀의 육묘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2017년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8주간 육묘하였다. 종자 육묘기술 개발을 위한 공통조건은 200구 트레이에 원예상토를 충진한 다음 셀 당 4립씩 파종하여 55% 차광막이 설치된 배드에 배치하였으며, 이후 4, 6주차에 Hyponex 500 $mg \cdot L^{-1}$을 처리하였다. 토양실험은 원예상토 단용[300-200-200 $mg \cdot L^{-1}$ (N-P-K)], 피트모스:펄라이트(3:1) 및 코코피트:펄라이트(3:1) 혼용토를 사용하였다. 피트모스와 코코피트의 혼용토는 원예상토의 비료농도를 기준으로 0-0-0, 300-200-200, 600-400-400 $mg \cdot L^{-1}$의 비료를 첨가하였다. 파종 립수별 실험은 셀탕 1, 2, 4 및 6립으로 하였으며, 추비는 hyponex (6.5-6-19) 0, 500, 1000 $mg \cdot L^{-1}$를 증류수에 희석하여 2회 분무기로 살포하였다. 차광 실험은 0, 55, 75% 등의 차광막이 설치된 곳에서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산꼬리풀의 육묘는 원예상토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토양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초장, 경직경 및 엽수는 원예상토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다음으로 피트모스:펄라이트 혼용토 순이었다. 근장의 경우, 피트모스 혼용토에서 비료 농도와 관계없이 원예상토에 비해 유의적으로 길었다. 파종립수에 따른 초장과 경직경은 1, 2립 파종구에서 가장 양호하였으며, 파종량이 적을수록 길고 굵어지는 경향이었다. 엽수도 셀 당 파종량이 적을수록 많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비는 지상부의 경우 hyponex 500 $mg \cdot L^{-1}$ 처리 시 생육의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비교적 고농도인 1000 $mg \cdot L^{-1}$ 처리구에서는 생육에 효과가 없거나 억제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근장은 처리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hyponex 1000 $mg \cdot L^{-1}$ 처리구(9.9 cm)에서 가장 길었다. 산꼬리풀의 유묘 재배 시 차광처리는 경직경과 근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초장과 엽수는 처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는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야생화 산업화를 위한 활용도 다변화, 연중재배 및 개화조절 기술 개발, KNA 17-C-38”의 사업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